(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報告書 第98輯

남강댐 소문·속사제 실시설계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2009. 6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目　　次

Ⅰ. 조사개요 3

Ⅱ.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4

1. 진주시의 자연 · 지리적 환경 4

2. 진주시의 역사적 환경 5

1) 진주시의 歷史 槪要 5

(1) 先史時代부터 三韓時代 5

(2) 三國時代부터 統一新羅時代 6

(3) 高麗, 朝鮮時代 6

(4) 近 · 現代 7

2) 진주시 역사관련 文獻資料 8

Ⅲ. 조사내용 12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 12

1) 초전동 내동유적① 12

2) 초전동 내동유적② 12

3) 하대동 유적① 12

4) 하대동 유적② 12

5) 가호동 유적 12

6) 소호동 유적 13

7) 원촌 지석묘① 13

8) 원촌 지석묘② 13

9) 원촌 유적① 13

10) 원촌 유적② 14

11) 신촌 유적 14

12) 소문리 둥섬들 유물산포지 14

13) 영남동 유적 14

14) 갈전리 유적 14

15) 소문리 유물산포지 15

16) 소문리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및 문산휴게소 유물산포지 15

2. 고고 · 역사분야 15

3. 사회 · 민속, 지명유래 17

1) 조사 대상지역 개관.....17
2) 民俗과 문화행사.....18
3) 지명전승.....20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21

참고문헌.....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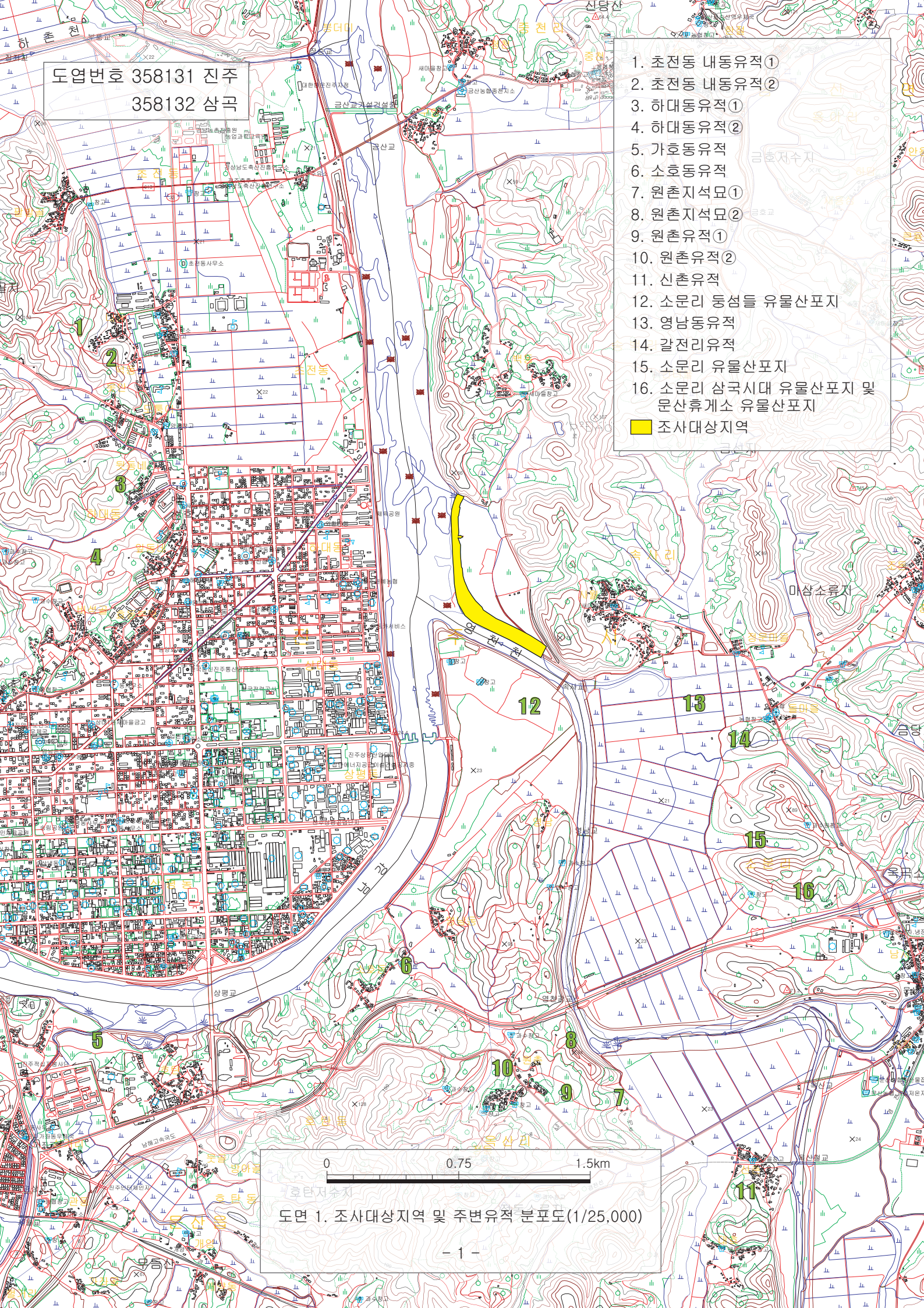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23

圖面目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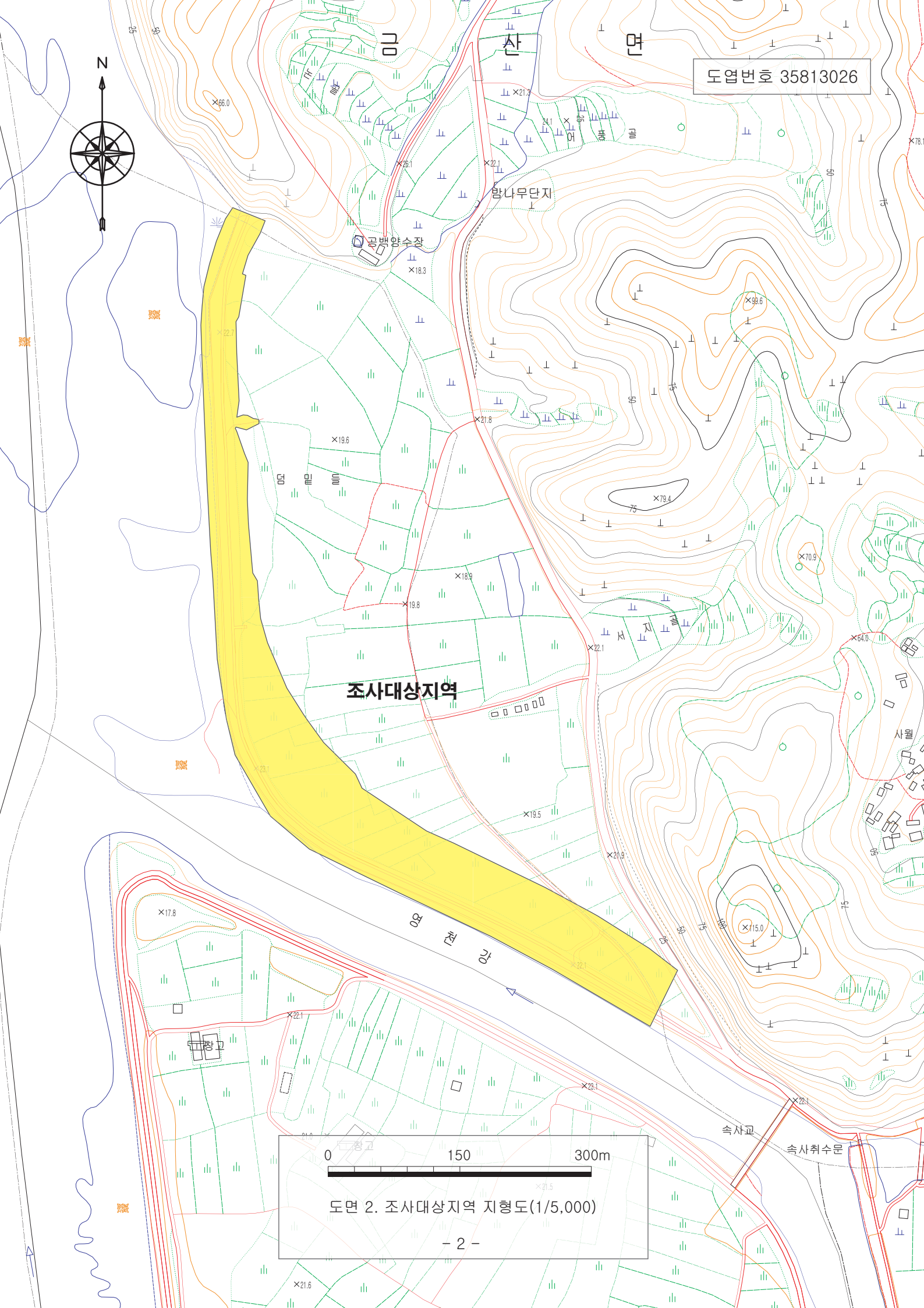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1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2
도면 3. 조사대상지역 광역지형도.....4
도면 4.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918년 고지도).....16

圖版目次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서→동).....16
도판 2. 조사대상지역 근경(북서→남동).....17
도판 3. 조사대상지역 근경(북→남).....17
도판 4. 조사대상지역 근경(남서→북동).....17
도판 5. 조사대상지역 근경(서→동).....17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Ⅰ. 조사개요

■ 조 사 명 : 남강댐 소문·속사제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경위

조사대상지는 (주)덕성에서 실시하는 '남강댐 소문·속사제 실시설계'사업 부지이다. (주)덕성에서는 영천강 하천기본계획 및 경남 진주혁신도시 사업을 반영한 남강댐 소문·속사제 설계 수정·보완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일부 구간인 속사제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 91조 1 동법 시행령 제53조 1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 전 문화유적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존방안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장조사는 사업대상지역 전구간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보로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고지도 및 기존에 보고된 각종 보고서와 학술지를 참고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지역 : 경남 진주시 문산읍 호탄동, 소문리 일원

■ 조사면적 : 74,748㎡(속사제 구간-속사리 일원)

■ 조사기간 : 2009년 05월 18일~2009년 06월 06일(총 20일간)

- 사전조사 : 8일
- 현장조사 : 2일
- 자료분석·정리 및 보고서 작성 : 10일

■ 조사의뢰기관 : (주)덕성

■ 조사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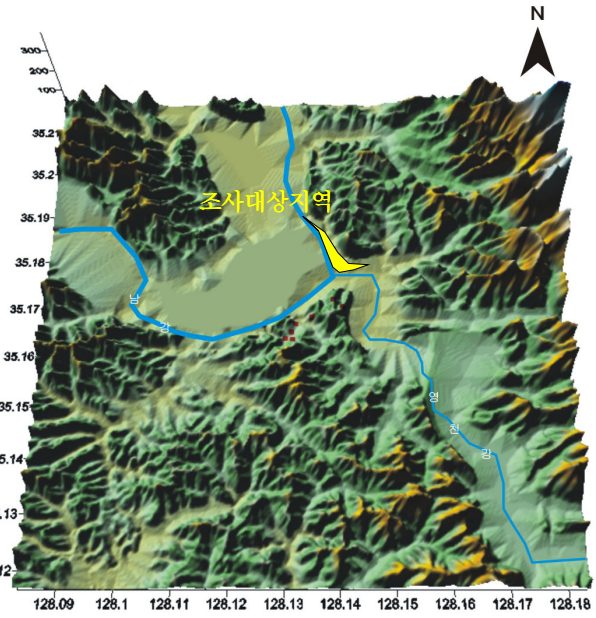
- 조 사 단 장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 박미정(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조사보조원 : 김경탁(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이현정(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Ⅱ. 조사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

1. 진주시의 자연·지리적 환경

진주시는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마산시·함안군과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하동군, 남쪽으로는 사천시와 고성군, 북쪽으로는 산청·의령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지형은 동부와 북부지역이 비교적 산세가 험하고, 서남부 지역은 표고 100~500m의 낮은 구릉이 분포하고 있으며, 농경지와 취락은 주로 낮은 계곡 사이의 곡부에 산재하고 있다. 지형상으로 동쪽은 오봉산(524m), 방어산(530m) 등 비교적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으며, 북쪽은 비봉산(672m)을 비롯하여 집현산(572m), 검무봉(280m)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 망진산(172m), 봉대산(302m) 등이 있다.

지질구조는 대부분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경상계 지층[1]에 해당하는 낙동통 진주층에 속하며, 암석은 연질사암과 혈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식물화석이 발견되고 있다. 지형적 특색을 살펴보면 우선 첨예한 山峰 대신 圓頂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山腹 및 산각이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야산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남강의 경우 전형적인 사행천으로 하방침식은 극히 미약하거나 거의 정지되어 있어 지형상으로 볼 때 만장년기에서 노년기 산지의 형태적 특징을 이루고 있다.[2]



도면 3. 조사대상지역 광역지형도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은 시 북부 중앙을 관통하여 동쪽으로 곡류하며 비옥한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남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으로는 북부의 미천면에서 발원한 향양천, 고성군 송구산에서 발원하여 금곡면·문산읍을 지나며 북류하는 영천강, 산청군 감투봉에서 발원하여 단성면·수곡면을 지나며 진양호로 흘러드는 덕천강 등이 있다.

기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안에 위치하여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기후지역에 속하며 계절풍의 영향을 받으나 경상남도 서부 내륙지방에 위치한 분지지형으

1) 慶尙累層群은 2억 3천만년 전부터 6천 3백만년 전까지 계속된 중생대의 지층을 대표한다. 중생대 말의 백악기에 쌓인 이 지층은 경상남·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이 지층이 쌓인 퇴적분지를 경상분지라고 부른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총설』, 2002.)
2) 진주시·경상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진주시』, 2003.

로 연교차는 큰 편이며, 지리산의 영향으로 인해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연간 평균기온이 13~14℃정도이며 연교차는 25.5℃이다. 강수량은 약 1,38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 6~8월에 내리는 하계집중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교통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경전선 철도와 남해안 고속도로가 동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으로는 대전~통영간 고속국도가 연결되어 있어 문화를 비롯한 상호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사천시, 서쪽으로는 남해와 하동, 북쪽으로는 산청·함양·거창·김천 등으로 연결되어 바다와 육로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해당된다. 행정구역상 전체면적은 712.62㎢이며, '1읍·15면·21동'을 관할하고 있다. 세대수는 122,786가구에 인구는 331,734명이다.(2009년 4월 통계자료)[3]

2. 진주시의 역사적 환경

1) 진주시 歷史 槪要

(1) 先史時代부터 三韓時代

진주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선사시대 유적 중 대표적인 것이 남강유적이다. 남강유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그 규모에 있어 단일지역으로는 국내 최대의 조사 지역이었으며, 이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는 선사·고대의 이 지역 역사를 조명함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진주와 인근지역은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청동기를 거쳐 삼한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아왔음이 확인되었다.[4] 이 외에도 남성동·이현동·유곡동 등지에서 마제석기와 무문토기 등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친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수정봉·옥봉의 산등성이와 상봉동·중안동의 언덕에서 발견된 비교적 큰 고분군은 가야시대 유력한 정치세력의 무덤으로 조사된 바 있다.[5]

진주지역과 관련된 삼한시대의 기록은『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삼한시대 弁辰 12국 중 하나인 '古淳是國' 또는 가야연맹체의 하나인 '古寧伽倻' 으로 비정되고 있다. 한편 삼한시대 경남에서 전남지역에 이

3) <진주시 홈페이지 통계현황> 참조.
4)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진주 남강 어은 2지구 선사유적』, 2001.
선문대학교,『옥방 5지구 유적』, 1998.
동아대학교박물관,『대평리 옥방4지구 유적』, 1998.
동아대학교박물관,『남강댐수몰예정지구 상촌리 유적 제2차 발굴조사』, 1998.
5) 수정봉·옥봉은 1974년 2월 16일 경상남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진주향교 맞은편 남봉에 남북으로 수정봉, 옥봉으로 불리는 2개의 구릉이 있는데 이 구릉 꼭대기에 7기의 대형 봉토분이 일정한 거리로 군(群)을 이루다가 일제강점기 때 파괴, 개간되어 지금은 2기만 남아 있다. 토기와 마구류(馬具類) 등 출토된 유물 자료로 보아 6세기 전반의 전형적인 가야시대 석실분으로, 백제와 대가야의 관계 규명에 단서를 제공해 주는 유적지이다.

르는 남해안의 해양세력인 '浦上八國'의 존재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포상팔국의 세력권이 전 남해안까지 뻗쳤다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8국 중 그 지명이 비정된 4국의 위치가[6] 모두 진주지역과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삼국사기』기록에 의하면 포상팔국과 가야·신라의 대립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7] 인근한 진주지역과 상호간에 교류 내지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마한을 비롯한 弁辰韓 삼한의 통폐합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삼국이 고착되는 어느 시기에 백제권역에 예속된 것으로 짐작된다.

(2) 三國時代부터 統一新羅時代

삼국시대의 진주지역은 고령 가야권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백제의 영역 하에 들어가 '居列城'으로 불리었다. 신라 문무왕때 이르러 장군 欽純과 天存이 군사를 거느리고 거열성을 공략, 함락시켜 신라의 영토에 편입하여 '居列州'로 만들었으며, 이후 신라의 영역으로 복속되었다.[8] 그리고 신문왕은(5년, 685) 거열주(일명 居陁州)를 나누어 '菁州'를 두고 대아찬 福世를 청주총관으로 임명 하였으며,[9] 경덕왕은(16년, 757) '9주 5소경'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기존의 청주를 '康州'라 개칭하고, 1개 주와 11개 군, 27현을 관할하게 하였다.[10] 원성왕 1년(785)에 총관을 도독으로 고쳤으며, 소성왕 1년(799)에 강주를 다시 '청주'로 개칭하였다. 헌덕왕 재위 후반기에 청주를 다시 '康州'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11] 이후 통일신라 하대와 후삼국시대에 이르러 고려와 후백제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당시의 진주지역이었던 康州는 왕봉규라는 호족의 독자적인 세력 하에 지배되고 있다가 고려 태조 11년(928)에 이르러 후백제의 세력권에 복속된 것으로 보인다.[12]

(3) 高麗·朝鮮時代

고려 태조때 진주지역은 계속 '康州'로 불려지다가 태조 23년(940)에 강주를 지

6) '포상팔국'이란 남해안 지방인 지금의 한려수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에 나뉘어져 있었던 소국가들로 8개의 국가 중에서 그 위치가 비정된 곳이 4곳이다. 이를 살펴보면 골포국, 칠포국, 고사포국, 사물국으로 지금의 마산만, 진동, 고성, 사천에 각각 해당하고 있다.

7) ①『三國史記』卷二 <新羅本紀>第二 奈解尼師今 十四年條.
十四年秋七月 浦上八國謀侵加羅 加羅王子來請救 王命太子于老與伊伐湌利音 將六部兵往救之 擊殺八國將軍 奪所虜六千人 還之.
②『三國史記』卷四十八 <列傳>第八 勿稽子條.
(上略)……後三年 骨浦 柒浦 古史浦 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下略).

8)『三國史記』卷六 <新羅本紀>六 文武王 三年條.
二月 欽純天存領兵 攻取百濟居列城 斬首七百餘級……(下略).

9)『三國史記』卷八 <新羅本紀>八 神文王 五年條.
(上略)……挺居列州 以置菁州 始備九州 以大阿湌福世爲摠管……(下略).

10)『三國史記』卷九 <新羅本紀>九 景德王 十六年條.

11)『三國史記』卷四十四 <列傳>四 金陽列傳 長慶二年條.

12)『高麗史』卷一 <世家>第一 太祖 十一年 五月 庚申條.
五月 庚申…(中略)…甄萱潛師襲康州 珍景等還戰敗 死者三百餘人 將軍有文降于萱.

금의 명칭인 '진주'로 고쳤으며, 성종 2년(983)에는 12목을 설치하면서 그 중 하나인 '진주목'으로 삼았다. 同 14년(995) 12목을 '12주 절도사'로 개편하면서 전국 10도 중 하나인 '山南道'를 설치하여 10주 37현을 소관하게 하였으며, 다른 명칭으로는 '定海軍'으로 칭하였다. 현종 3년(1012)에는 절도사를 폐하고 안무사를 두었다가 同 9년(1018)에 다시 안무사를 없애고, 전국을 '4도호부 8목 56주군 28진'으로 나누게 되면서, 8목 중 하나인 '진주목'으로 하고 명칭을 '晋康'(당시까지 별호로 진양 또는 청주로 불리웠다.)으로 하였다.[13] 예종 1년(1106) 영남도·영동도·산남도를 통합한 '경상진주도'로 하였으며, 명종 1년(1171)에 '경상주도'와 '진합주도'로 분할되어 한 때 경상도 지역을 통괄하다가 同 16년(1186)에 경상주도와 진합주도를 재통합, '경상주도'라 하였다.(당시 감영은 경상북도 상주에 두었다.) 고종 21년(1234)부터 약 8년간은 별호인 '진양'으로 불리며 당시 실권자였던 최충헌의 아들 최이의 식읍으로 두었다. 이후 충렬왕 24년(1298)에 '경상진안도'라 하였다.[14]

조선시대에는 초기에 顯妃(康氏)의 내향이라 하여 한때 '진양대도호부'로 승격되었다가(태조 1년, 1392) 태종 2년(1402)에 진양을 다시 '진주'로 개칭하고 대도호부를 '牧'으로 변경하였다. 세종 19년(1437), 당시의 진주목 관할은 반성현·영선현·악양현·개화부곡·살천(시곡)부곡·흥선도였으며,[15] '진주목'이라는 큰고을로 서부경남 일대를 총괄하였다. 임진왜란 이듬해에 벌어진 진주성 전투에서 왜군에 의해 6만 군·관민이 장렬하게 순절하고 진주성이 함락되었으며, 선조 37년(1604)에 합포(지금의 마산시)의 경상도우병영이 임진왜란으로 소멸되자 촉석성(진주성)으로 옮겨 절도사가 牧使를 겸하게 하였으나, 인조 13년(1635)에 다시 병영을 나누고 목사로 환원하였다.[16]

(4) 近·現代

고종 32년(1895)에 이르러 전국의 행정구역을 '23부제'로 개편하면서 진주는 '진주부'가 되고, 진주목은 '진주군'으로 개칭되어 군수를 두었다. 이듬해인 1896년 13도제를 실시하고 도청을 부산에서 진주로 이전하여 도청소재지가 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다. 1917년에 이르러 진주지역은 인구가 많고 상공업이 발달되어 재력이 풍부한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起債權이 인정된 지정면[17](당시 전국에 23개)이 되었으며, 1925년에는 진주군에 있던 도청이 다시 부산부로 이

13) 『高麗史』 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晋州條 참조.
14) 위의 『地理志』 二 序文 참조.
15) 『世宗實錄』 卷一百五十 <地理志> 慶尙道 晋州牧 참조.
16) 『輿地圖書』 <慶尙道-晋州> 建置沿革.
(上略)……宣祖癸卯以合浦兵營亂 後焚蕩移設 于此以節度使兼牧使 仁祖乙亥 分州營還置牧使……(下略).
17) '指定面'은 1917년 일제가 시행한 제도로 이후 1931년부터 시행되는 邑制에 의해 邑으로 승격되는 面을 말한다. 1917년 처음 지정이 있었을 때 전국적으로 23개 면이 해당되었으나, 1920년 이후 지정면은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정면은 보통의 면과는 처우를 달리 받았다.(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 『경상남도 연구』, 1997.)

전하였다. 1931년 지정면인 진주면이 읍으로 승격하였고, 1939년에는 진주읍이 진주부가 되었다. 1949년 府가 시로 개칭되어 시장을 두고 행정구역은 17町 12里 37洞으로 개편되었으며, 1973년에 진양군 정촌면 가좌리·호탄리, 내동면 귀곡리가 진주시로 편입되었다. 1990년에는 망경 남·북동을 망경동으로, 상봉 동·서동을 상봉동으로, 수정 남·북동을 수정동으로, 옥봉 남·북동을 옥봉동으로, 상평 동·서동을 상평동으로, 초전 남·북동을 초전동으로, 이현 남·북동을 이현동으로, 판문 남·북동을 판문동으로 통합하였다. 이후 인접한 진양군과 里·洞의 통폐합을 거치면서 1995년 도농통폐합으로 진주시와 진양군이 합쳐져 통합시인 진주시가 되었다. 이러한 진주지역의 명칭 변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진주지역 명칭 변화

	통일신라					고려시대			
연도	663	685	757	799	825	940	983	995	1018
	문무왕3	신문왕5	경덕왕 16	소성왕1	헌덕왕 17	태조23	성종2	성종14	현종7
명칭	거열주	청주	강주	청주	강주	진주	진주목	진주	진강
	고려시대				조선시대				
연도	1106	1186	1234	1298	1392	1402	1895	1896	
	예종1	명종16	고종21	충렬왕 24	태조1	태종2	고종32	건양원년	
명칭	경상 진주도	경상 주도	진양	경상 진안도	진양대 도호부	진주목	진주부 진주군	경상남도 진주군	
	근·현대								
연도	1910		1931		1939		1949	1995	
명칭	진주군 진주면		진주군 진주읍		진주부 진양군		진주시 진양군	진주시	

2) 진주시 역사관련 文獻資料

史料 『 』 魏書 東夷傳 弁辰條

弁辰도 역시 12國으로 되어 있다. 또 작은 여러 別邑이 있는데(이들 모두에는) 제각기 渠帥가 있다. (그 중에서) 세력이 가장 큰 곳은 그 우두머리를 '臣智'라 하고, 그 다음에는 '險側'이라 하였으며, 다음에는 '樊濊'가 있고, 다음에는 '殺奚'가 있으며, 다음에는 '邑借'가 있다…(하략).[18]

史料 『 』 ミ 雜志 地理

康州는 神文王 5년(685), 당나라 垂拱 元年, 居陁州를 분할하여 菁州를 설치하였고, 景德王이 강주로 개칭한 것인데, 지금의 晋州이다. 이 州에 속한 縣은 둘인데, 嘉壽縣은 원래 加主火縣을 景德王이 개칭한 것으로 지금도 그대로 부

18)『三國志』<魏書> 東夷傳 弁辰傳.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中略)… 弁辰古資彌凍國 弁辰古淳是國……(下略).

른다. 屈材縣은 지금 미상이다.[19]

史料 『 』 志 第 地理

晋州牧은 원래 백제의 居列城('居陁'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文武王 2년(662)에 빼앗아서 州를 설치하였고, 神文王 4년(684)에 거타주를 나누어서 菁州總管을 설치하였다. 景德王은 康州라고 고쳤는데, 惠恭王이 다시 청주로 고쳤다. (고려) 太祖는 다시 康州로 고쳤고, 成宗 2년(983)에 처음으로 전국에 12개 牧을 설치하면서 진주가 그 중 하나가 되었으며, 14년(995)에 12개 州 節度使를 두면서 晋州定海軍이라고 불렀으며, 이를 山南道에 소속시켰다. 顯宗 3년(1012)에 절도사를 폐지하고 안무사로 하였으며, 9년(1018)에 牧으로 정하여 8개 牧 중 하나가 되었다. 晋康(成宗이 정한 명칭이다) 또는 菁州·晋陽이라고도 부른다…(중략)…이 주에 소속된 郡이 2개이며, 縣이 7개, 그리고 그 관할 하에 知事郡이 1개, 縣令官이 3개 있다.[20]

史料 『 』 晋州牧

동쪽으로 咸安郡 경계까지 67里이고, 鎭海縣 경계까지 79里이고, 남쪽으로 泗川縣 경계까지 28里이고, 固城縣 경계까지 66里이고, 서쪽으로 丹城縣 경계까지 38里이고, 昆陽郡 경계까지 27里이고, 河東縣 경계까지 67里이고, 전라도 光陽縣 경계까지 96里이고, 북쪽으로 三嘉縣 경계까지 45里이고, 宜寧縣 경계까지는 40里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866里이다.

〔建置沿革〕 본래 백제의 居列城(居陁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文武王이 빼앗아서 州를 설치하였다. 神文王은 거타주를 분할하여서 晋州摠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은 康州로 고쳤다. 惠恭王이 다시 菁州로 고쳤다. 고려 太祖는 또 강주로 고쳤으며, 成宗 2년(983)에는 牧을 설치하였다가, 14년(995)에 晋州라 고쳐서 節度使를 설치하고 定海軍이라 칭하며 山南道에 예속시켰다. 顯宗이 安撫使로 고쳤으며, 뒤에 8牧의 하나로 정하였다. 本朝(조선)에서는 太祖가 顯妃의 內鄕이라 하여 晋陽大都護府로 승격시켰는데, 太宗 때에 이르러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 牧으로 만들었다. 世祖朝에는 鎭을 설치하였다.

〔郡名〕 居列城·居陁·菁州·康州·晉陽·菁川·晉山·晉康·定海軍이다.

〔城郭〕 矗石城 : 州의 남쪽 1리에 있다. 석축인데 둘레가 4,359척이며, 높이는 15척이다. 성 안에 우물과 샘이 각 셋이 있고 軍倉이 있다.

〔烽燧〕 臺方山烽燧 : 州 남쪽 114리에 있다. 남쪽으로 남해현 錦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角山에 응한다. 望晋山烽燧 : 남쪽으로 사천 鞍岾에 응하고, 북쪽으로

19)『三國史記』卷三十四 <雜志>第三 地理一.
康州 神文王五年 唐垂拱元年 分居陁州 置菁州 景德王改名 今晋州 領縣二 嘉壽縣 本加主火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屈材縣 今未詳.

20)『高麗史』卷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晋州牧 本百濟居列城 一名居陁 新羅文武王二年取而置州 神文王四年 分居陁州置菁州摠管 景德王改爲康州 惠恭王復爲菁州 太祖又改康州 成宗二年 初置十二牧州其一也 十四年 置十二州節度使 號晋州定海軍屬山南道 顯宗三年 廢爲安撫使 九年定爲牧 爲八牧之一 別號晋康(成廟所定) 又號菁州 又號晋陽…(중략)…屬郡二 縣七 領知事郡一 縣令官三.

廣濟山에 응한다. 角山烽燧 : 州 남쪽 76리 지점에 있다. 남쪽으로 대방산에 응하고, 서쪽으로 곤양 牛山에 응하며, 북쪽으로 사천 안점에 응한다. 廣濟山烽燧 : 州 북쪽 31리에 있다. 남쪽으로 망진산에 응하고, 북쪽으로 단성 笠岩山에 응한다.[21]

史料 『 』 嶺南 晉州

〔建置沿革〕본래 백제의 居列城(일명 居陁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文武王이 취하여 州를 설치하였고, 王[22]이 거타주를 나누어 晋州總管을 설치하였으며, 敬王(景德王)이 康州로 고쳤는데, 惠恭王이 다시 菁州로 하였다. 고려 太祖가 다시 康州로 고쳤으며, 成宗 2년(983)에 牧을 설치하고, 14년(995)에 진주에 節度使를 설치하여 定海軍이라 부르고 山南道에 속하게 하였다. 顯宗이 고쳐 安撫使로 되었다가, 후에 8牧을 정할 때 그 하나가 되었다. 本朝(조선) 太祖 때 顯妃(康氏)의 내향이라 하여 晋陽大都護府로 승격되었으나, 太宗 때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되고 牧으로 하였다. 世祖 때 鎭營을 설치하였다.(이상의 것들은 『輿地勝覽』을 보라) 宣祖 때 壬辰倭亂으로 合浦(昌原의 舊號이다)가 焚蕩되어 형태가 없어졌는데, 矗石城의 형세가 험고하여 體察使 李德馨의 啓請에 의하여 甲辰年(1604)에 이곳으로 병영을 옮기고 이에 節度使로 하여금 牧使를 겸하게 하였는데, 그 때에 節度使는 곧 李守一이었다.

〔州名〕居列城・居陁・菁州・康州・晉陽・菁川・晉山・晉康・定海軍이다.[23]

史料 『 』 晋州鎭 晋州牧

동쪽으로 咸安 경계까지 67里이고, 남쪽으로 泗川 경계까지 28里이고, 서쪽으로 丹城 경계까지 38里이고, 址는 三嘉 경계까지 70里이다. 서울과의 거리는 866里이고 9일半 정도 걸리며, 동쪽으로 監營과의 거리는 240里 이고 2일半

21)『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 <晋州牧>.
晋州牧 : 東至咸安郡界六十七里 至鎭海縣界七十九里 南至泗川縣界二十八里 至固城縣界六十六里 西至丹城縣界三十八里 至昆陽郡界二十七里 至河東縣界六十七里 至全羅道光陽縣界九十四里 北至三嘉縣界四十五里 至宜寧縣界四十里 至丹城縣界四十七里 距京都八百六十六里.
〔建置沿革〕本百濟居列城 一名居陁 新羅文武王取而置州 神文王分居陁州置晉州摠管 景德王改康州 惠恭王復爲菁州 高麗太祖又改康州 成宗二年置牧 十四年改晉州置節度使 號定海軍隸山南道 顯宗改安撫使 後定爲八牧之一 本朝 太祖以顯妃內鄕 陞爲晉陽大都護府 太宗朝復今名爲牧 世祖朝置鎭.
〔郡名〕居列城・居陁・菁州・康州・晉陽・菁川・晉山・晉康・定海軍.
〔城郭〕矗石城 在州南一里 石築 周四千三百五十九尺 高十五尺 內有井泉各三 有軍倉.
〔烽燧〕臺方山烽燧 在州南一百十四里 南應南海縣錦山 北應角山 望晉山烽燧 南應泗川鞍岾 北應廣濟山角山烽燧 在州南七十六里 南應臺方山 西應昆陽牛山 北應泗川鞍岾 廣濟山烽燧 在州北三十一里 南應望晉山 北應丹城笠巖山.

22) 여기에서는 그냥 '王'으로 나오는데 다른 사료들을 살펴 볼 때, 신라 神文王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3)『慶尙道邑誌』<嶺南 晉州>.
〔建置沿革〕本百濟居列城 一名居陁 新羅文武王取而置州 王分居陁州 置晋州總管 敬王改康州 惠恭王復爲菁州 高麗太祖又改康州 成宗二年置牧 十四年晋陽置節度使 號定海軍隸山南道 顯宗改爲安撫使 後定爲八牧之一 本朝 太祖以顯妃內鄕 陞爲晋陽大都護府 太祖朝復今名爲牧 世祖朝置鎭營 以上見輿地勝覽 宣祖朝壬辰倭亂 以合浦 昌原舊號 焚蕩無形 矗石城形勢險固 體察使李德馨 啓請 甲辰移兵營于此 以節度使兼牧使 其時節度乃李守一也.
〔州名〕居列城 居陁 菁州 康州 晉陽 菁川 晉山 晉康 定海軍.

정도 걸린다. 남쪽으로 統營과의 거리는 220里 이고 1일半 정도 걸리며 남쪽으로 兵營과의 거리는 2里이다.

〔建置沿革〕 본래 백제의 居列城(일명 居陁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文武王이 취하여 州를 설치하였다. 神文王은 거타주를 나누어서 晋州摠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은 康州로 고쳤다. 惠恭王이 다시 菁州로 고쳤다. 고려 太祖는 다시 강주로 고쳤으며, 成宗 2년(983)에는 牧을 설치하였다가, 14년(995)에 晋州라 고쳐서 節度使를 설치하고 定海軍이라 칭하며 山南道에 예속시켰다. 顯宗이 安撫使로 고쳤으며, 뒤에 8牧의 하나로 정하였다. 本朝(조선)에서는 太祖가 顯妃의 內鄕이라 하여 晋陽大都護府로 승격시켰다. 太宗朝에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 牧으로 만들었으며, 世祖朝에는 鎭을 설치하였다.

〔郡名〕 居列城・居陁・菁州・康州・晉陽・菁川・晉山・晉康・定海軍이다.

〔戶口〕 己卯式 元戶가 13,966戶이며, 人口는 65,098명으로 男가 28,548명이고 女가 36,550명이다.[24)]

史料 『 』 : 晋州郡

〔沿革〕 본래 백제의 居列城(居陁라고도 한다)이었는데, 신라 文武王이 빼앗아서 州를 설치하였다. 神文王은 거타주를 분할하여서 晋州摠管을 설치하였고, 景德王은 康州로 고쳤다. 惠恭王이 다시 菁州로 고쳤다. 고려 太祖는 또 강주로 고쳤으며, 成宗 2년(983)에는 牧을 설치하였다가, 14년(995)에 진주라 고쳐서 節度使를 설치하고, 定海軍이라 칭하며 山南道에 예속시켰다. 顯宗이 安撫使로 고쳤으며, 뒤에 8牧의 하나로 정하였다. 本朝(조선)에서는 太祖가 顯妃의 內鄕이라 하여 晋陽大都護府로 승격시켰는데, 太宗 때에 이르러 다시 지금의 명칭으로 고쳐 牧으로 만들었다. 世祖朝에는 鎭을 설치하였다…(중략)…宣祖 36년(1603)에 體察使 李德馨이 啓請하여 합포병영을 본 주에 옮겨 설치하여 절도사로 하여금 목사를 겸하게 하였다. 仁祖 13년(635)에 주를 나누어 營을 다시 설치하고, 목사가 다스렸으며, 高宗 32년(1895)에 관찰부를 설치하였고, 建陽元年(1896)에 郡으로 되었다. 大正 13년(1914) 慶南道廳이 釜山府로부터 이전, 설치되었다.

〔郡名〕 居列城・居陁・菁州・康州・晉陽・菁川・晉山・晉康・定海郡・晋州이다.

Ⅲ. 조사내용

24)『與地圖書』 <晋州鎭 晋州牧>.
晋州鎭 晋州牧 : 東至咸安界六十七里 南至泗川界二十八里 西至丹城界三十八里 址至三嘉界七十里 距京八百六十六里 九日半程 東距監營二百四十里 二日半程 南距統營一百二十里 一日半程 南距兵營三里.
〔建置沿革〕 本百濟居列城 一名居陁 新羅文武王取而置州 神文王分居陁州置晉州摠管 景德王改康州 惠恭王復爲菁州 高麗太祖又改康州 成宗二年置牧 十四年改晉州置節度使 號定海軍隸山南道 顯宗改安撫使 後定爲八牧之一 本朝 太祖以顯妃內鄕 陞爲晉陽太都護府 太宗朝復今名爲牧 世祖朝置鎭.
〔郡名〕 居列城・居陁・菁州・康州・晉陽・菁川・晉山・晉康・定海軍.
〔戶口〕 己卯式 元戶一萬三千九百六十六戶 人口六萬五千九十八口內 男二萬八千五百四十八口 女三萬六千五百五十口

1. 조사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 현황[25)]

1) 초전동 내동유적①

금성초등학교의 서북쪽에 있는 내동마을 서북쪽 야산의 정상부와 사면에 위치한다. 현재 복숭아, 자두나무 등의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곳에 삼국시대의 단경호편, 개편, 대옹편 등 토기편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다. 채집유물로 보아 목곽묘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시대의 분묘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초전동 내동유적②

금성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현대·흥한 아파트의 서북쪽 야산에 위치한다. 야산의 정상부와 사면에 삼국시대의 단경호 등의 토기편이 산포되어 있다. 채집유물로 보아 목곽묘를 중심으로 하는 삼국시대의 분묘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하대동유적①

하대동 뒷동네의 야산의 등산로 주변에서 삼국시대의 단경호와 대옹 등의 토기편이 채집되었다. 관련유구는 확인되지 않으나 채집유물로 보아 삼국시대의 분묘 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하대동유적②

진주제일여고에서 선학산쪽으로 가는 포장도로 변에 위치한다. 현재 밭으로 경작되는 곳에서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 저부편과 삼국시대의 단경호편이 소량 채집되었다. 관련유구는 확인되지 않으나 이곳 일대에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의 유구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5) 가호동유적[26)]

진주 가호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인 가호동 유적은 경남 진주시 가호동 705번지 일원으로 2008년 2월 28일~현재까지 (재)동서문물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전기의 수혈주거지, 후기(송국리단계)의 생활유구(주거지, 수혈유구, 야외노지, 환호, 함정 등) 및 매장유구(묘역식 지석묘, 석관묘,

25) 25)) 晋州市・慶尙大學校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晋州市』, 2003.
26) (재)동서문물연구원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 진주 가호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석개토광묘), 경작유구(밭) 등이 조사되었으며 그 외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의 밭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6) 소호동유적

경남 진주시 호탄동 일원으로 우리연구원에서 2006년 12월 8일~2007년 2월 5일까지 정밀지표조사 및 2008년 10월 8일~12월 6일까지 발굴(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호동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 하부구조로 추정되는 방형집석묘 3기, 석렬 1기, 조선시대 분묘 1기 등이 분포하며, 소호동 표본시굴대상지에는 청동기시대 석관묘 3기, 수혈 1기, 구 3기 및 주혈 3기, 지석묘 상석으로 추정되는 대석 2기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유구가 확인된 구간에 대해 우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며, 발굴조사구간과 연접한 구간에 대한 추가시굴조사 결과 구가 확인이 되어 추가 발굴이 실시될 예정이다.

7) 원촌지석묘①

2번 국도변에 있는 원촌마을 동쪽 편에 1기가 축조되어 있다. 평면 장방형의 상석이 잔존하며 상석의 크기는 길이 1.4m, 너비 1.3m, 두께 0.3m이다. 상석 상부에는 성혈이 존재하며 상석 아래에는 지석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8) 원촌지석묘②

원촌마을의 북쪽 구릉부에 1기가 축조되어 있으며, 상석의 크기는 길이 3.1m, 너비 1m, 두께 0.5m이다. 이곳 주민의 말에 의하면 지석묘는 과거부터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현재 하부구조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9) 원촌유적①

진주시내에서 문산읍을 잇는 2번 국도의 북쪽 정상부와 사면에 위치한다. 주로 단경호로 추정되는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연질토기편이 채집된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채집유물로 보아 삼국시대 목곽묘와 석곽묘 등이 조영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원촌유적②

2번 국도변에 있는 원촌마을의 동북쪽 야산에 위치한다. 배나무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는 일대에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산포되어 있다. 채집유물와 입지조건으로 볼 때 생활·분묘 유적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1) 신촌유적

2번 국도의 남쪽에 있는 신촌마을의 남쪽 구릉에 위치한다. 타날문 단경호를 비롯하여 격자타날문 연질토기, 대옹편 등이 산포되어 있다. 지표상에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으나 채집유물로 보아 주로 삼국시대 목곽묘가 분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 소문리 둥섬들 유물산포지

영천강이 곡류하여 구천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가설된 속사교의 남동쪽 진입구 부근에 위치한다. 우리 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2008년 11월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1구간) 전면에서 조선시대 밭층이 확인되었으며, 조선시대 밭층 아래에는 삼국시대 문화층이 두께 110㎝정도로 존재한다.

13) 영남동유적

영남동유적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334-4번지 일원으로 2009년 3월 30일~4월 30일까지 (재)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유적 일부에 대해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삼국시대 밭 1~2개층, 고려시대 밭 1~2개층, 조선시대 밭 3~4개층 그리고 삼국시대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었다. 조사를 통해 이 유적 일대에서 삼국시대부터 지속적인 밭 경작활동이 이루어졌음이 확인 되었다.[27)]

14) 갈전리유적

남강쪽으로 뻗은 소구릉의 정상부와 사면에 위치한다. 소량의 무문토기와 석기편이 채집되었으며, 유구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 유물산포지일 가능성이 크다.

15) 소문리 유물산포지

27) (재)경상문화재연구원 지도위원회 자료집
-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둥섬들 유물산포지 추가문화재 시굴조사.

영천강의 배후습지 뒤에 분포하는 곳으로 낮은 구릉과 그 사이의 곡저평야지대에 해당하며 우리 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2008년 11월에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북쪽의 1구릉에서는 조선시대 분묘 1기, 남쪽의 2구릉에서는 삼국시대 목곽묘 2기와 조선시대 분묘 4기가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목곽묘와 조선시대 분묘가 2구릉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곡저평야지대에서는 삼국시대 수전층과 삼국시대 건물지 주혈군,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16) 소문리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및 문산휴게소 유물산포지

문산휴게소 북쪽 구릉의 아랫자락에 해당하며 우리 연구원에서 2009년 1월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2·3·4공구) 문화유적 발굴<시굴>조사) 경남고고학연구소에서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한 소문리 유물산포지와 인접하여 삼국시대 목곽묘 및 조선시대 분묘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성격미상의 수혈 3기 및 주혈 1기가 조사되었을 뿐 별다른 문화유적은 검출되지 않았다.

2. 고고·역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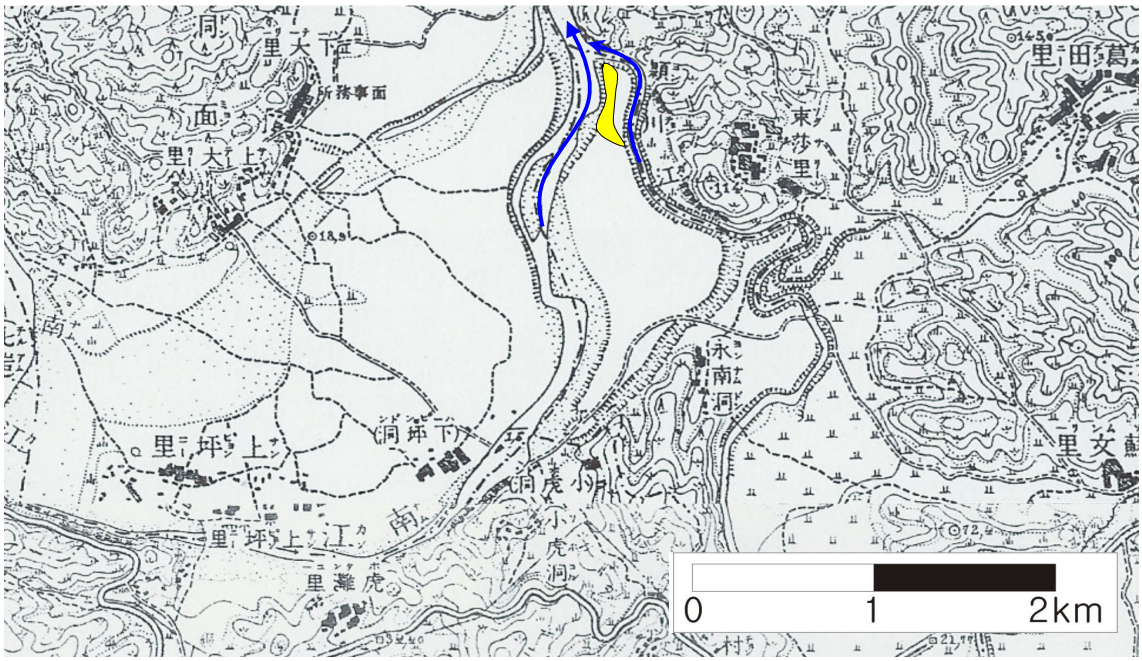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역은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일원으로 동쪽과 북쪽에는 평균 해발 100m 이하의 낮은 구릉이 분포하며 서쪽으로는 제방을 경계로 남강이 흐르고 있다. 조사대상지와 접하는 동쪽과 북쪽의 구릉은 모두 남서쪽으로 급격한 경사면을 이룬다.

현재 조사대상지 남쪽에서 남강과 영천강이 'T'자형으로 합수되고 있는데 1918년 작성된 고지도[28]상에서 영천강의 유로는 조사대상지 동쪽과 북쪽의 급경사면을 따라 곡류하여 조사대상지 북쪽에서 남강과 합류되어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사대상지는 원래 영천강의 공격사면과 남강의 사이에 형성된 좁은 충적지로 남강의 범람이나 유로 변동에 따라 항시 변동되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후대 하천정비작업과 제방공사 과정에서 영천강의 유로를 변경하고 제방을 쌓아 조사대상지 일대의 범람을 막은 후 현재와 같은 지형을 이루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8) 경인문화사, 『韓國 五萬分之一 地形圖』, 1985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전경(서→동)



도면 4.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918년 고지도)

금번,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 면적은 74,748㎡으로 현재 남쪽 일부는 복토되어 배나무밭으로, 그외 대부분은 고추농사를 위한 하우스가 설치되어 재배되고 있었다. 하우스 주변의 다른 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격토되어 있는 밭이랑과 하우스 등 전구간에 대한 조사를 도보로 세밀하게 진행하였으나 유물이나 기타 유적의 징후는 출토되지 않았다.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조사대상지에 현재와 같은 지형이 이루어진 것은 고지도를 참고할 때 근·현대에 이르러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지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영천강의 유로에 의한 공격사면과 남강의 유로 사이에 형성된 좁은 충적지로 항시적인 남강의 범람과 유로 변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유적이 형성되기 어려운 지형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번 조사대상지에서 벗어난 영천강 남쪽의 영남동 일대는 1918년 고지도상에서도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경작지 등의 유적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2. 조사대상지역 근경(북서→남동)



도판 3. 조사대상지역 근경(북→남)



도판 4. 조사대상지역 근경(남서→북동)



도판 5. 조사대상지역 근경(서→동)

3. 사회·민속, 지명유래

1) 조사 대상지역 개관

금번 조사는 '남강댐 소문·속사제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로 조사대상지역은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일원'이며 조사대상 면적은 74,748㎡이다.

금번 조사대상 지역인 琴山面은 진주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진성면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초장동과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문산읍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대곡면, 집현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지형상 동쪽에는 월아산

(482m)이 있으며, 남서쪽으로 남강과 고성군에서 흘러 온 영천강이 합류하여 면의 서쪽과 북쪽을 흐르고 있다. 행정구역상 전체면적은 32.80㎢이며, 면소재지인 장사리를 포함한 7개 법정리, 36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6,551가구에 인구는 20,601명(2009년 5월 통계자료)이다.[29] 금산면은 신라 헌강왕 때 건립되었다는 청곡사와 '진주 8경' 중 하나인 월아산, 신라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용아리 금호지 등의 문화재와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조선초기에는 진주목 동면 관할로 琴山里・代如村里・月牙彌里・槽洞里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조선중기 임진왜란 이후에는 대여촌리와 월아미리를 금산리에 병합하였다. 이후 순조 32년(1832)에 대여촌리가 다시 분리되었으며, 고종 1년(1864)에는 모두 面으로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해 기존 3개 面들이 통・폐합되어 비로소 지금 명칭인 '琴山面'으로 개편되었다. 『교남지』 <晋州郡> 邑面町里에는 진주읍을 비롯한 여러 면의 명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금산면 관할의 갈전리와 속사리를 포함한 7개 리의 명칭이 나타나 있다.[30] 이러한 행정체계는 이후 큰 변화없이 지속되다가 1987년 대곡면 와룡리 일부를 가방리로 편입하고, 가방리 일부를 대곡면 단목리로 이속, 집현면 덕오리 일부를 장사리로 편입하는 등 일부 행정구역 개편을 거쳤다. 1995년 도농통폐합으로 진주시와 진양군이 합쳐져 현재의 진주시가 형성되면서 진주시 관할이 되었다.

2) 民俗과 문화행사

진주시에는 다양한 민속행위와 놀이가 전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승되고 있는 것에는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 많다. 이 중 무형문화재를 비롯하여 제례의식과 놀이, 민요와 설화, 洞祭의 사례 및 문화행사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1]

먼저 특색 있는 전승놀이로는 중요무형문화재인 '진주 검무'와 '진주・삼천포 농악'을 들 수 있다. '진주 검무'의 특징은 여러 춤꾼들이 戰複을 입고 전립을 쓴 채 칼을 휘저으며 춤을 추기 때문에 속칭 '칼춤'이라고도 부르며, 짜임새는 8명의 춤꾼들이 '도드리→느린타령→빠른타령→느린타령→아주 느린타령'의 장단 흐름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화사한 춤사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진주・삼천포 농악'은 12次(마당) 36가락의 짜임새로 흥겹게 구성된 농악이다. 또한 도무형문화재로 '진주 포구락무(도무형문화재 제12호)'와 '진주 한량무'가 있다. '진주 포구락무'는 채구를 毬門의 風流眼에 던져 넣는 놀이에 음악과 무용이 첨가된 궁중가무의 하나였는데 진주지역으로 전해오면서 그 나름대로의 의상・치장・창법

29) <진주시청 금산면 홈페이지 통계현황> 참조.

30) 『嶠南誌』 卷之五十三 <晋州郡> 邑面町里條.
(상략)……琴山面 中川里 松栢里 東少里 葛田里 龍牙里 長沙里 加芳里……(하략).

31) 진주시에 전승되고 있는 民俗에 관한 자료는 광범위하다. 이에 여기서는 『韓國民俗大觀』(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下(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9), <진주시청 홈페이지> 자료 등에 보고된 것들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 여타 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오광대놀이'와 '문산 줄다리기'가 전승되고 있다. 그중 '문산 줄다리기'는 여타 지역과는 다르게 줄싸움이 끝나고 나면 줄을 끊어 가는데, 이는 풍년을 기원하고 자식을 얻는데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우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행해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 달집태우기, 땅따먹기, 제기차기, 꽃놀이, 팽이치기 등을 비롯하여 여러 민간신앙과 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다음으로 각종 동제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진주지역 인근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목신제・당산제・입석제・성황당제・장승제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경우가 상봉동의 '동신제'이며, 그 유래도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마다 음력 정월보름날 자정에 당산나무 옆에 있는 당집에서 제를 지낸다.

민요로는 '농부가', '나무꾼 노래', '베틀가', '삼 삼기 노래', '목화 따는 노래', '사랑요', '시집살이 노래' 등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설화 및 전설의 경우 지명과 인물들이 관련되어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이 중 몇가지 예를 들면, '구뱃골[九拜谷]'에 있는 한 쌍의 돌과 관련된 '鳴石 전설'(명석면 신기리)을 비롯하여 '수도자리 용두산', '비봉산과 봉알자리', '효성과 엄마다리', '무학대사와 진주의 지맥', '대나무 열매', '개구리 바위와 龍說' 등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

문화행사 역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개천예술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문화예술행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개천예술제'는 1949년에 정부수립의 자주독립을 기리고 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제1회 영남예술제로 개최되었다. 이후 1959년에 개천예술제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1964년부터 68년까지는 국가원수가 개제식에 참석하는 최초의 예술제였다. 행사 기간 동안 남강에 유등을 띄우는 행사인 '진주남강유등축제'와 '남인수가요제' 및 각종 문예행사, 청소년축제 등 서제, 개제식, 예술문화행사의 7개 부문에 60여개의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진주남강유등축제'는 1592년 임진왜란 3대첩지의 하나인 진주성 싸움 당시 김시민 장군을 비롯한 3,800여 관군이 성밖 지원군과의 군사신호로 풍등을 하늘에 올리며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운 것에서 유래되었다. 1949년부터 현재의 유등놀이로 정착시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국제규모의 행사로 치르고 있다.

이외에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에서 순국한 논개를 비롯한 7만 민・관・군의 충절과 정신을 기리는 '진주논개제'는 매년 5월 넷째주 금~일 3일간에 걸쳐서 호국충절의 성지인 진주성에서 개최된다. 그밖에도 '영호남연극제', '진주민속소싸움대회'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32]

진주를 世居地로 삼고 사는 姓氏는 거창 신씨・경주 정씨・밀양 손씨・삭령 최씨・여양 진씨・연일 정씨・울산 김씨・의령 남씨・재령 이씨・전의 이씨・진주 강씨・진주 류씨・진주 정씨・진주 하씨・창녕 성씨・청주 한씨・태안 박씨・파평 윤씨

32) <진주시청 홈페이지 자료> 참조

・함안 이씨・함안 조씨・함평 모씨・해주 정씨 등이 있다.

3) 지명전승[33]

금산면 '束沙里'는 남강과 영천강이 합류되는 지점의 안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안새울, 속새울 또는 속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따라 금산면 백동 일부와 조동면 속사동 일부를 병합하여 '속사리'로 개편되어 금산면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을과 관련된 이름으로는 이 지역의 지명에서 유래한 '束沙'마을, 속사리에서 가장 큰 마을인 '새-울'마을이 있다. 속사리 중앙에는 그 위치가 중앙에 있다하여 이름 붙여진 '당-골'마을이 있으며, 큰마을 이란 뜻의 '큰-몰'마을이 있다. 속사마을 북쪽에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의 '새-터'마을이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신기'라 불린다. '구석몰'은 속사리의 북쪽 구석진 곳에 있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며, '대밭골'은 속사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다. 또한 북쪽의 양지바른 마을이라는 뜻의 '야앙-쪽'마을이 있으며, 지형이 '마치 소가 누운(臥牛) 모양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臥牛-谷'(또는 왜엣-골)이 있다.

산, 고개, 골짜기, 논, 들을 비롯한 기타 전승되는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 고개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속사마을 서쪽에 '구름산' 또는 '雲丹山'으로 불리는 벼랑으로 된 산이 있으며, 남쪽에는 산의 생김새가 밥그릇처럼 생겼다고 하여 '밥-봉(食峯)'이라 불리는 산이 있다. '馬三-山'은 속사마을 동쪽에 있는 산으로 그 형상이 마치 말이 뛰어오는 형국을 하고 있어 붙여진 지명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몰-얖닥'이라 부른다. 북쪽에는 靑小石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치 신선이 내려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형국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름붙여진 '금선봉'이 있다. 등성이 이름으로는 속사마을 동쪽에 '도망-등'이, 남쪽에는 '큰-등'이, 마을 북쪽에는 '진-등'이 전한다. '할미당'은 속사마을 북쪽에서 송백리 어유골로 가는 고개를 가리기며, 옛날 당집이 있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골짜기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속사마을 동쪽에 지형이 마치 갓처럼 생겼다고 하여 '갓-골'로 불리는 골짜기와 '건네세엔-골'이 있다. 갓골 위쪽에는 '웃-갈골'이 있으며, 속사마을 북쪽에는 '서인-골'과 '세앙골'이 있다. 속사마을 서쪽으로는 예전에 서재가 있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서지-골'이 있으며, 마을 앞쪽으로는 '집앞-골'이 있다.

들과 관련된 지명으로는 '덤밑-들', '밭-들', '세솔-등', '장승-개'가 있다. '덤밑-들'은 속사마을 서쪽에 있는 들로 구름등 덤 밑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밭-들'은 속사마을 남쪽에 있으며, 1970년대에 경지 정리되어 開沓되었다. '세솔-

33) 조사지역에 전승되는 지명에 대해서는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9-경남Ⅱ』, 2000.
진양군사편찬위원회, 『晋陽郡史』, 1994.
〈진주시청 홈페이지 자료〉 등을 참고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등'은 속사마을 남쪽에 있는 들로 남강과 영천강이 합쳐져 돌이나 재갈을 씻어 간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속사 서쪽에는 옛날 장승이 있었다고 하여 '장승-개'라 이름 붙여진 들이 있다.

이 외에 속사마을 중앙에 '깔미-새미(渴馬井)'라는 우물이 있는데, 수질이 아주 좋으며 물이 솟아오를 때 갈미(말미)풀이 떠 있어 약효가 있다고 전한다. 그리고 속사마을 북쪽에 부엉이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부학-덤'과 마을 뒤쪽에 있다고 하여 '동네뒷-덤'으로 불리는 더미가 있다. 이밖에도 많은 지명들이 전승되고 있다.

Ⅳ. 종합고찰 및 조사단의견

이상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일원의 남강댐 소문·속사제 실시설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문헌적·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조사내용을 요약하여 조사단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지역은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일원으로 현재 동쪽과 북쪽에는 남서사면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평균 해발 100m 이하의 낮은 구릉이 분포하며 서쪽으로는 제방을 경계로 남강이 흘러 조사구역 남쪽에서 영천강과 합류하는 지형상에 위치한다.

2. 지표조사 결과와 고지형도를 참고할 때 조사대상지에 현재와 같은 지형이 이루어진 것은 근·현대에 이르러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일대는 원래 영천강과 남강의 유로 사이에 형성된 좁은 충적지로 유수에 의한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이 활발하여 유적이 형성되기 어려운 지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상기의 상황을 종합할 때, 조사대상지역은 유수에 의한 지형의 변화가 빈번한 지역으로 유구 및 유물 등 유적의 징후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사 진행중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체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三國志』<魏書> 東夷傳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嶠南誌』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편,『경상남도 연구』, 1997.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진주 남강 어은 2지구 선사유적』, 2001.
선문대학교,『옥방 5지구 유적』, 1998.
동아대학교박물관,『대평리 옥방4지구 유적』, 1998.
동아대학교박물관,『남강댐수몰예정지구 상촌리 유적 제2차 발굴조사』, 1998.
慶尙南道・東亞大學校 博物館,『南江流域文化遺蹟發掘圖錄』, 199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韓國民俗大觀』,1·2·3, 1981.
國史編纂委員會,『한국사1-총설』, 2002.
권상노,『韓國地名沿革辭典』, 이화문화출판사, 1994.
金泰植,『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문화재청・서울대 박물관,『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Ⅰ·Ⅱ, 1999.
田溶新,『韓國古地名辭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5.
晋陽郡史編纂委員會,『晋陽郡史』, 1994.
晋陽文化院,『晋州牧正史』1・2・3, 1992.
晋州文化院,『晋州地名史』, 1996.
晋州市・慶南文化財硏究院,『晋州城 拱北門』, 晋州市, 2000.
晋州市・慶尙大學校博物館,『文化遺蹟分布地圖-晋州市』, 2003.
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慶尙南道民俗集』, 1993.
韓國精神文化硏究院 편,『慶尙南道의 鄕土文化』上・下, 1999.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10-경남・부산편』, 2003.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table>
<tr><td rowspan="4">사업
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3">남강댐 소문속사제 실시설계 문화재 지표조사</td><td>사업기간</td><td colspan="2">2009.05.18
~2009. 06. 06</td></tr>
<tr><td>사업지역</td><td colspan="6">경남 진주시 문산읍 호탄동, 소문리 일원</td></tr>
<tr><td>면 적</td><td>전체사업
면적</td><td>74,748㎡</td><td>지표조사
면적</td><td colspan="3">74,748㎡</td></tr>
<tr><td>사업시행자</td><td>원발주기관</td><td>(주)덕성</td><td>지표조사
의뢰기관</td><td colspan="3">(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화번호 : 055-265-9150</td></tr>
<tr><td rowspan="8">지표
조사</td><td rowspan="5">조사기관</td><td>고고,역사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박미정</td><td>조사원·
조사보조원</td><td>김경탁,
이현정</td></tr>
<tr><td>민속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조사보조원</td><td></td></tr>
<tr><td>수중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조사보조원</td><td></td></tr>
<tr><td>고건축분야</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조사보조원</td><td></td></tr>
<tr><td>자연문화재</td><td></td><td>책임조사원</td><td></td><td>조사원·
조사보조원</td><td></td></tr>
<tr><td>조사기간</td><td colspan="6">2009년 5월 18일 ~ 2009년 6월 6일(총 20일간)</td></tr>
<tr><td>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td><td>고고·역사
분야</td><td>원</td><td>민속
분야</td><td>원</td><td>수중
분야</td><td>원</td><td>고건축
분야</td><td>원</td></tr>
<tr><td rowspan="6">조사
결과</td><td rowspan="2">주변문화재
조사결과</td><td>지정문화재</td><td colspan="6"></td></tr>
<tr><td>비지정문화재</td><td colspan="6">영남동 유적(약 1.5km 이격), 소문리 둥섬들 유물산포지(0.5km 이격), 갈전리 유적(1km 이격), 소문리 유물산포지(1.3km 이격), 소문리 삼국시대 유물산포지 및 문산휴게소 유물산포지(2.4km 이격), 소호동 유적(2.5km 이격), 원촌 유적①(4km 이격), 원촌 유적②(약 3.7km 이격), 원촌 지석묘①(약 4km 이격), 원촌 지석묘②(3.7km 이격)</td></tr>
<tr><td rowspan="4">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td><td>지상문화재</td><td colspan="6"></td></tr>
<tr><td>매장문화재</td><td colspan="6"></td></tr>
<tr><td>건축물</td><td colspan="6"></td></tr>
<tr><td>민속자료</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조사기관
종합 의견</td><td colspan="6">조사대상지역은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일원으로 현재 동쪽과 북쪽에는 평균 해발 100m 이하의 낮은 구릉이 분포하며 서쪽으로는 제방을 경계로 남강이 흘러 조사구역 남쪽에서 영천강과 합류하는 지형상에 위치한다.
지표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에 현재와 같은 지형이 이루어진 것은 근·현대에 이르러서인 것으로 판단되며 원래는 영천강의 유로에 의한 공격사면과 남강의 유로 사이에 형성된 좁은 충적지로 유수에 의한 침식작용과 퇴적작용이 활발하여 유적이 형성되기 어려운 지형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사대상지에서 벗어난 영천강 남쪽은 1918년 고지도상에서도 넓은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상황을 종합할 때, 조사대상지역은 유수에 의한 지형의 변화가 빈번한 지역으로 유구 및 유물 등 유적의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사진행중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체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td></tr>
<tr><td colspan="2">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6"></td></tr>
</table>

2009년 6월 4일

지표조사기관명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인)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地表調査報告 第98輯

남강댐 소문·속사제 실시설계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인 쇄 일 / 2009년 6월 3일
발 행 일 / 2009년 6월 4일

編輯·發行 /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2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인 쇄 처 / 부 광 사
641-824 경남 창원시 사림동 11-1
TEL : (055) 285-1834